

## 51. 자동차 정비원에서 발생한 백반증

성별	남성	나이	만 35세	직종	자동차 정비원	직업관련성	높음
----	----	----	-------	----	---------	-------	----

### 1 개요

근로자 ○○○은 2017년 9월 □사업장에 입사하여 1년 7개월간 자동차 정비원으로 일반 정비공정에서 오일교환, 엔진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. 근로자는 2017년 9월 입사 당시 피부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나, 2018년 1월경 피부에 하얀 반점이 생긴 걸 처음 발견하였다. 그 후 반점이 피부 모든 부위에 번지기 시작하면서 병원진료를 시작하였고 2019년 1월 26일 백반증으로 진단을 받았다. 근로자는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일류와 분진 등에 의해 피부 자극 및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상기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. 이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2020년 1월 29일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요청하였다.

### 2 작업환경

근로자 ○○○은 사업장 4곳에서 약 9년 10개월간 자동차 정비원으로 일반 정비작업공정에서 신너, 오일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며 엔진오일교환 등 차량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다. 근로자는 2017년 9월 □사업장에 입사하여 1년 7개월간 자동차 정비원으로 일반 정비작업공정에서 오일교환, 엔진정비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. 해당 작업을 수행하면서 세척제, 접착제 등 톨루엔, 시클로헥산 등이 포함된 화학물질 사용하였다.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1일 8시간 1주 평균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였다. 근로자 진술에 의하면 1주당 3~4회 정도는 22시까지 근무하였다.

### 3 해부학적 분류

- 기타 질환

### 4 유해인자

- 화학적 요인

## 5

## 의학적 소견

근로자 ○○○은 2017년 9월 입사 당시 피부에 별다른 병변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, 2018년 1월경 복부 부위의 피부에 하얀 반점이 생긴 것을 처음 발견하였고 이후 점차 신체 전반에 번졌다. 2018년 7월부터 사지 및 전신에 저색소반이 급격히 증가하여 대학병원을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 상에서 자가면역질환 관련 혈액 검사결과(ANA)는 음성이었고, 혈청 총 IgE는 252KU/L (참고치 0-100)로 증가 하였으나, 그 원인 항원은 집먼지 진드기 외에는 식품류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며, 백반증 진단 하에 레이저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. 진료기록에는 7차례 레이저 치료 후 색소가 열리는 양상을 보였으며, 근로자는 직장을 그만둔 이후에는 병변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. 근로자는 2017년 1월부터 3월 까지 접촉성피부염 및 피부건선으로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으며 그 외에는 특이 질환은 없었고, 직계 가족 중 자가면역질환 등의 특이질환은 없다고 진술하였다. 현재는 금연상태이나 과거에 약 15년간 매일 한 갑 씩 담배를 피웠고 음주는 주 1회 1병 반 정도를 마신다고 하였다.

## 6

## 고찰 및 결론

근로자 ○○○(남, 1984년생)는 만 35세가 되던 2019년 1월에 백반증을 진단 받았다. 근로자는 2008년부터 □사업장을 포함하여 5개소 사업장에서 약 11년 5개월간 자동차정비원으로 신너, 오일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며 엔진오일 교환 등 차량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다. 백반증의 원인 물질은 다양한데 백반증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물질에는 하이드로퀴논, 페놀, 카테콜 유도체가 포함된 유기용제 류가 대표적이다. 근로자는 엔진오일 등의 오일류 교환 및 보충 과정, 차량부품정비에서 산화방지제 등의 첨가물 및 접착제에 함유되어 있는 페놀류, 하이드로퀴논류 성분 물질에 직·간접적으로 노출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.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한다. 끝.